

만언니 '양보'에 동생 '금빛 화살'로 화답



女양궁 리커브 단체, 부상 주현정 대신 이특영 나서 金 합작 李 "언니와 같이 뛰었다" ... 기보배도 중계석에서 눈물 응원

광주를 대표하는 신궁 3인방의 눈물이 담긴 금메달이었다.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28일 인천 계양아시아드에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세트점수 6-0(54-50 56-55 58-52)으로 이기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4-0으로 앞선 채 시작한 3세트. 28-52의 상황에서 장혜진(27·인화), 이특영(25·광주시청), 정다소미(24·현대백화점)는 마지막 화살을 모두 10점에 꽂아넣으며 한국 여자 양궁 5연패에 화려한 마침표를 찍었다. 여자 대표팀 큰 언니 주현정(32·현대모비스)의 아름다운 양보 속에 만들어진 값진 금메달이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주현정의 금메달 도전은 고지를 앞두고 부상으로 중단됐다. 최종 선

발전을 통과했지만 어깨 통증 탓에 결승 무대를 포기하며 후배 이특영에게 무대를 양보했다. 주현정을 대신해 2006년 도하대회 이후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전 무대에 선 이특영은 우승의 순간 "언니와 한마음으로 뛰었다. 부담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지난 고생도 생각나고 감격스러웠다"며 눈물을 보였다. 후배가 후속이나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는 않을까 누구보다 노심초사했던 주현정은 "잘했다. 기특하다. 내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쁘다"며 그런 후배를 붙잡고 더 많은 눈물을 쏟아냈다. 또 한 사람의 눈물이 있었다. 해설위원으로 변신해 경기장이 아닌 중계석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른 기보배(26·광주시청)도 "이들이 자랑스럽고 고맙다. 얼마나 부담이 됐을지 저 무대에 서봤기

때문에 나도 그 마음을 잘 안다"고 울먹였다. 사대에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냉철한 신궁 3인방이지만 긴 여정 끝에 얻은 금메달 앞에선 이들의 마음도 녹았다. 이특영·주현정·기보배에게 아시안게임은 특별하다. 광주를 대표하는 신궁 3인방은 단체전 3개의 금메달을 만들어낸 주역이다. 주현정과 이특영은 두암초-동명여중-광주체고를 거쳐 국가대표로 발도올 한 7년 선후배. 이특영은 만 15세의 나이로 국내 양궁 최연소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기록을 쓴 뒤 다음해인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까지 거머쥐었다. 2010년에는 주현정이 금메달 바통을 이어받았다. 2010 베이징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주현정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명종시켰다. 광주를 제 2의 고향 삼아 광주여대·광주시청을 대표하는 선수로 된 기보배도 광저우에서 금메달 행진에 함께 했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



28일 인천 계양양궁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 결승에서 금메달을 확정지은 한국팀의 이특영(25·광주시청·왼쪽)과 주현정(32·현대모비스)이 기뻐하고 있다. 주현정은 어깨 통증으로 이특영에게 출전을 양보했다. 이들은 전남 출신으로 초·중·고 선후배다. /연합뉴스

광주 동일전자정보고 박결, 골프 개인전 金·단체 銀



19언더파... 태국 꺾고 짜릿한 역전승

광주 여고생 골퍼 박결(18·동일전자정보고)이 한국 여자골프 개인전 3연패를 이루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우뚝 섰다. 박결은 28일 인천 드림파크골프장(파72)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부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쇼를 펼치며 최종합계 19언더파 296타를 기록, 태국의 붓사바쿰 수카판(18언더파 270타)을 꺾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수카판에 2타 뒤진 2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박결은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뽑아내는 버디쇼로 8언더파 64타를 적어내며 뒷심을 발휘했다.

9번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파를 기록한 수카판과 동타를 이룬 박결은 17번홀(파3)에서 역전을 이뤄냈다. 수카판이 보기를 적어낸 사이 박결은 파를 만들며 1타 앞선 상황에서 마지막 18번홀 승부에 들어갔다. 흔들림없이 우승을 확정짓는 버티 퍼트를 완성한 박결은 수카판의 마지막 퍼트를 지켜본 뒤 금메달의 기쁨을 만끽했다. 한국은 박결의 금메달로 아시안게임에서 13번째 금메달을 채웠다. 태국의 강세에 밀려 단체전-개인전 3연패를 실패했지만 개인전3연패를 이뤘다. 이소영(17·안양여고), 최혜진

(15·학산여중)과 대표팀을 구성한 박결은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전은 3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매 라운드 상위 2명의 성적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순위가 가려지며 한국은 545타를 기록, 538타의 태국에 밀려 은메달에 머물렀다. 박결은 "첫 날 경기가 안 풀려 동생들에게 민폐가 된 것 같아 미안했는데, 2·3·4라운드에서 샷도 잘 맞았고 퍼팅도 잘 됐다.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힘을 얻었고, 안 들어갈 공도 들어간 것 같다"며 기뻐했다. 이번 금메달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회원이 된 그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1부투어 시드전에서 시드를 획득해 내년부터 1부 투어에서 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잘싸웠다" 세팍타크로 28일 오후 경기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세팍타크로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중주국인 태국을 상대로 점수를 벌였으나 역부족, 2-0으로 패하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인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 출신 나아름, 사이클 금·은·동 획득



"조금만 더! 여기서 남 아가자!, 이것만 참자!"고 마음 속으로 외치며 끝까지 갈 생각에만 집중했습니다. 나주 출신 나아름은 이번 대회에서 사이클 트랙과 도로 종목에 참가하는 활약으로 발군의 사이클 실력과 강철 체력을 뽐냈다. 나아름은 지난 27일 인천 송도 사이클도로코스에서 열린 여자 28km 도로독주에서 37분54초43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했다. 나아름의 금빛 질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침

없었다. 10명의 주자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나선 나아름은 첫 구간 14km에서 9번째 주자인 일본의 우와노 미나미를 추월하고 18분56초18의 가장 빠른 기록으로 1위를 달렸다. 두 번째 구간에서도 나아름은 한차례 페달을 밟아 18분58초25만에 14km 구간을 주파했다. 두 구간 모두 18분대를 기록한 선수는 나아름이 유일했다. 평균 시속은 44.318km에 달했다. 앞서 22일에는 순회정(27·대구체육회), 이민혜(29·경남체육회), 김유리(27·상주시청)와 호흡을 맞춘 단체추발에 출전해 은메달을 차지했고, 24~25일에는 사이클 종합경기인 유니엄에서 동메달을 거둬들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트랙 위주로 사이클을 탄 나아름은 전남미용고 들어와서 도로로 영역을 넓혔고, 나주시청 선수로 뛰면서 도로 실력을 향상시

켰다. 지난 5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 대회에서 도로독주 1위를 거머쥐며 그 가능성을 높인 나아름은 마침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그 꿈을 이뤘다. 2010년 광저우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첫 금메달을 따낸 것이다. 광저우 대회 20km 포인트레이스 결승에서 2위를 달리다가 바로 앞에서 넘어진 홍콩 선수에게 휩쓸리는 아찔한 낙차 사고로 메달을 놓치고 눈물을 쏟았던 나아름은 이번 금·은·동 메달로 아시안게임 약목을 즐겨온 기억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나아름은 29일 구성은(30·대구체육회)과 함께 '사이클의 마라톤'인 개인도로에 나서 '금빛 질주'에 도전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자 축구, 일본 꺾고 4강행

내일 태국과 준결승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인천 아시안게임 4강에 진출했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8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남자 준준결승 일본과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1986년 서울 대회 이후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패권 탈환을 노리는 우리나라는 30일 태국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태국은 요르단을 2-0으로 꺾고 4강에 선착했다. 한국은 20세와 21세 선수로 구성된 일본을 상대로 경기 내내 몰아붙이면서도 후반 막판까지 골을 넣지 못해 경기장을 찾은 4만여 관중의 애를 태웠다. 전반 28분에는 이용제가 문전 혼전 상황에서 빈 골문을 향해 오른발 땅볼 슈트를 시도했으나 일본 수비수 이와나미 다쿠야가 막아내는 등 공방을 벌였다. 앞서 경기 도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북한과 아랍에미리트

(UAE)의 경기에서는 북한이 1-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 오늘의 아시안게임 (29일·월)**
- ▲육상=정순욱(인천시청·진도 출신) 여자 멀리뛰기, 김민(목포시청) 여자 원반던지기(11시·아시아드 주경기장)
 - ▲볼링=최복음·박종우(이상 광양시청), 이영승(한국체대·곡성 출신) 남녀 5인조(9시·안양호계체육관)
 - ▲사이클=나아름(삼양사·나주 출신) 여자 개인 도로 결승(12시·송도사이클 도로코스)
 - ▲축구=여자 4강전 한국-북한(20시·문학경기장)
 - ▲레슬링=김관욱(광주 남구청) 남자 자유형 86kg 등(13시·도원체육관)